

##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박 회 진<sup>1)</sup>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문 혁 준<sup>2)</sup>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알아보고자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15개원에서, 영아를 둔 어머니 2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법을 이용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어머니가 자기보고식으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및 양육효능감을 평가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t검증, 상관분석,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36세 이상 어머니는 사회적 지지가, 35세 이하 어머니는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우울감은 취업 어머니보다 비취업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는 비취업 어머니보다 취업 어머니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전문대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400만원대 소득의 어머니보다 300만원대 소득의 어머니가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에 대한 애착은 우울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또한 우울은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아울러, 영아를 둔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를 높이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이 더욱 강조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제어 : 양육효능감,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지지

---

\* 이 논문은 2012년 12월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임.

1)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수료

2) 교신저자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수 (E-mail : mhyukj@unitel.co.kr)

##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혹은 양육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점차 성장해감에 따라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 확장해간다. 생후 초기에 영아가 어머니와 형성한 강한 애착은 아동기의 사회적 정서발달 뿐만 아니라 모든 발달영역들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성인기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아기에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Berin, Ziv, Amaya-Jackson, & Greenberg, 2005).

한편,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최선의 역할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아기의 자녀양육은 유아기와 달리 부모에게 또 다른 물리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이 시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인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며(Mash & Johnston, 1990), 안지영(2001)은 양육효능감을 부모역할에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행동근원으로 규정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이는 아동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하였다(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Sanders & Woolley, 2005).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부모역할에 있어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Gondoli & Silverberg, 1977). 국내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인성성취에 대한 기대는 높고, 지적 성취 기대가 낮으며(이승미, 2004),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문제해결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고 보고되었다(문혁준, 1999).

국내의 여러 연구에서 보듯이 양육효능감은 부모관련 변인, 가정환경에 관한 변인, 자녀관련 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부모관련 변인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신숙재, 1997; 정혜인, 2003; 최형성, 2005; 현온강, 조복희, 1994). 즉, 영아반에 보내는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서소정, 2004)에 반해 일부 연구(안선희, 김선영, 2004; 한유미, 2003)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 관련해서는 비취업모가 취업모에 비해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결과(정혜인, 2003)가 있는 반면, 어머니의 취업이 심리적 안녕에 기여하여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양육효능감을 높게 지각한다는 결과들(백종화, 2001)도 있다.

가정환경과 관련된 변인은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이 높으면 양육효능감도 높으나(김경은, 2003) 가계 소득과 양육효능감이 선형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편은숙, 2003).

자녀관련 변인은 주로 자녀의 성, 연령, 출생순위 등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에 따라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문혁준, 2001; 신숙재, 1997; 홍정유, 2006) 정혜인(2003)은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양육효능감이 높았다고 하였다. 자녀의 발달적 시기에 따라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박성연, 고은주, 2002), 만 3~5세 유아를 둔 어머니(한유미, 2003), 만 5세를 둔 유아의 어머니(이진숙, 한지현, 2004)의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또한 자녀가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성장할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송연숙, 김영주, 2007)가 있는 반면, 유아기와 초등학교 고학년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다고 밝힌 연구(김미숙, 2005)도 있다. 아울러 자녀의 출생순위와 양육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첫째 자녀에 대한 양육효능감보다 둘째 이하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결과들(송미혜, 2006; 이경하, 2009)이 있는가 하면 출생순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류기자, 2006)도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에서 보여주듯이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애착이 있다. 영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유아와 달리 어려운 점은 영아는 탐색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지적 발달을 이루며 생활해나간다. 그런데 이러한 탐색은 영아가 어머니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되어 있을 때 원활해지고 확대된다. 즉, 영아기에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여 어머니를 안전 기반으로 삼아 주위 환경을 탐색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초기 애착 개념은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에서 발전되어 왔다. 특히, 인생의 초기에서만 형성되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생애적 관점으로 확대되었으며, 부모나 교사에 대한 아동 편에서의 단일 방향적인 애착 개념에서 벗어나 상호방향적인 애착개념이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Beal, 1991).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애착관련 연구는 영아 편에서의 애착연구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같은 한 방향에서의 애착 개념에서 벗어나 어머니에 대한 자녀의 유대감과 영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지칭하는 양방향적 개념으로 확대한 Denham과 Moser(1994)의 주장을 근거로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아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애착연구는 우리나라 어머니의 실정에 맞도록 황현주와 정옥분(2006)에 의해 척도가 개발되면서 이루어져왔으며(이수진, 2011; 이해영, 권민균, 2007),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효능감

을 가지고 임하면 아동과의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윤미, 2008).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우울이 있다. 요즘 사회적으로 우울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아 어머니의 우울 증상은 단순한 슬픔이나 우울한 기분에서부터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심각한 임상적 우울 증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우울 증상은 슬픈 감정이나 침울한 기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 장애라고도 정의되었으며(이은주, 1997), Beck, Ruch, Shaw와 Emery (1979)는 우울 증상을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로서 근심, 침울감, 실패감, 상실감, 무력감,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우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남성 중심적인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다(권석만, 2003).

기혼 여성의 우울은 중요한 발달적 과업인 결혼 및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기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문제이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우울하면 다른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가족 내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과 관련이 있다. 즉, 우울한 어머니는 일관되지 못한 양육행동과 자녀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이들의 자녀들은 또래에 비해 자신에게 상당히 비난적이고(Hammen, Adrian, & Hiroto,

1988) 정서 조절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나타내며(정지연, 2008), 우울 집단에 속한 어머니가 비우울 집단에 속한 어머니보다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연, 2012). 따라서 영아기 어머니의 우울에 대한 개입은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특히 강조되어진 요인으로서 어머니의 역할이나 자녀를 대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Bronfenbrenner, 1979). 오늘날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로 인하여 어머니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족에게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은 어머니들에게 불안, 긴장 및 산후우울, 어머니 역할 전환의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고 있다.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지지망과 지지형태뿐만 아니라 지지 욕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Belsky(198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는 덜 지배적이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는 유아의 사회, 인지 발달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역할수행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즉, 영아 어머니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면 개인이 갖고 있는 부족한 자원이 보충되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류기자 등 2009; 이승미, 2004). 이는 양육경험이 많은 주변사람들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

하면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하면, 현재까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변인들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대상이 영아가 아닌 유아 또는 아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을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 아울러 영아기는 급성장을 보이며 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로 생애의 어느 시기보다 중요성이 강조되므로(Bornstein, 2002) 영아를 둔 어머니를 연구함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분위기 속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높아지고 있으며, 출산 이후에 사회로 복귀하는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영아 양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 나아가 양육효능감은 가정환경 변인과 더불어 아동과 어머니 개인변인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요인으로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양육효능감을 신장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즉,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학력,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애

착, 사회적 지지, 우울, 양육효능감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사회적 지지, 우울 및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사회적 지지, 우울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15개 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250명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250부(회수율 100%) 중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19부는 제외하였다.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231명은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 0세, 1세, 2세 영아들의 어머니로 동의여부를 묻고 설문조사를 시작하였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연령은 35세 이상이 105명(45.5%), 36세 이상이 126명(54.5%)이었으며, 비취업한 어머니는 111명(48.1%), 취업한 어머니는 120명(51.9%)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하가 91명(39.4%), 대졸 이상은 140명(60.6%)이었으며, 가정의 월소득은 400만원 미만은 102명(44.2%), 400만원 이상은 129명(55.8%)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성별은 남아 103명(44.6%), 여아 128명(55.4%)이었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N=231)

|          | 구분       | 빈도  | %    |
|----------|----------|-----|------|
| 영아       | 남아       | 103 | 44.6 |
|          | 여아       | 128 | 55.4 |
|          | 만 0세     | 95  | 41.2 |
|          | 만 1세     | 88  | 38.1 |
|          | 만 2세     | 48  | 20.8 |
| 어머니 연령   | 35세 이하   | 105 | 45.5 |
|          | 36세 이상   | 126 | 54.5 |
| 어머니 취업여부 | 비취업      | 111 | 48.1 |
|          | 취업       | 120 | 51.9 |
| 어머니 학력   | 전문대졸 이하  | 91  | 39.4 |
|          | 대졸 이상    | 140 | 60.6 |
| 가정의 월소득  | 400만원 미만 | 102 | 44.2 |
|          | 400만원 이상 | 129 | 55.8 |

으며, 연령은 만 0세 95명(41.2%), 만 1세 88명(38.1%), 만 2세 48명(20.8%)이었다.

## 2. 측정도구

### 자녀에 대한 애착

본 연구에서는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황현주와 정옥분(200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녀에 대한 애착 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긍정적 정서 .88, 접촉추구 .83, 자기희생 .85, 근접추구 .88, 보호 .83, 결속 .82, 냉담 .81, 기대감 .72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 우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Beck 등(1979)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4점 척도,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점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 사회적 지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198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 총 5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 지지 .94, 정보 지지 .95, 물질 지지 .91, 평가 지지 .93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8로 나타났다.

### 양육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자신의 양육능력에 대한 지각인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양육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도구들을 참고로 하여 최형성(2002)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Likert식 4점 척도, 총 37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효능감 도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전반적 양육 .84, 건강한 아동 .80, 의사소통 .82, 학습지도 .77, 훈육능력 .71이며, 총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어린이 집을 섭외하여, 연구의 목적 및 검사도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 뒤, 재원 중인 영아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검사지를 배부하였다. 약 2주~3주 후, 각 기관에 배부된 모든 검사지를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거나 우편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검사지는 2012년 7월 1주에 배부하여 2012년 7월 4주에 걸쳐 1차 회수하였으며, 2012년 8월 2주에 추가로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어머니의 연령은 사전조사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연령이 35세 전후가 가장 많은 분포 결과를 보여 35세를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가정의 월소득은 3인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기준으로 영아 가정의 월

가계소득을 400만원으로 구분하였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학력, 월소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간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면,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이 4.34( $SD=.41$ ), 우울이 1.28( $SD=.32$ ), 사회적 지지가 3.89( $SD=.67$ ), 양육효능감이 3.09( $SD=.33$ )로 나타났다.

표 2.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 $N=231$ )

| 변 인       | 응답 가능한 점수 범위 | 최소값  | 최대값  | $M(SD)$   |
|-----------|--------------|------|------|-----------|
| 자녀에 대한 애착 | 1~5          | 3.00 | 5.00 | 4.34(.41) |
| 우울        | 1~4          | 1.00 | 3.00 | 1.28(.32) |
| 사회적 지지    | 1~5          | 1.00 | 5.00 | 3.89(.67) |
| 양육효능감     | 1~4          | 2.00 | 4.00 | 3.09(.33) |

# 1.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학력,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

먼저, 영아를 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우울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지지( $t=2.23$ ,  $p<.05$ )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6세 이상의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35세 이하의 어머니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우울( $t=2.33$ ,  $p<.05$ )과 사회적 지지( $t=-3.07$ ,  $p<.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우울감이 더 높

표 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

( $N=231$ )

|           | 35세 이하<br>( $n=105$ ) | 36세 이상<br>( $n=126$ ) | $t$   |
|-----------|-----------------------|-----------------------|-------|
|           | $M(SD)$               | $M(SD)$               |       |
| 자녀에 대한 애착 | 4.33(.42)             | 4.34(.40)             | -.29  |
| 우울        | 1.25(.30)             | 1.31(.33)             | -1.53 |
| 사회적 지지    | 3.40(.66)             | 3.80(.67)             | 2.23* |
| 양육효능감     | 3.12(.31)             | 3.06(.35)             | 1.15  |

\* $p<.05$ .

표 4.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

( $N=231$ )

|           | 비취업<br>( $n=111$ ) | 취업<br>( $n=120$ ) | $t$     |
|-----------|--------------------|-------------------|---------|
|           | $M(SD)$            | $M(SD)$           |         |
| 자녀에 대한 애착 | 4.32(.44)          | 4.35(.38)         | -.58    |
| 우울        | 1.33(.39)          | 1.23(.22)         | 2.33*   |
| 사회적 지지    | 3.75(.73)          | 4.02(.58)         | -3.07** |
| 양육효능감     | 3.08(.36)          | 3.10(.31)         | -.43    |

\* $p<.05$ . \*\* $p<.01$ .

게 나타났으며,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우울( $t=2.80$ ,  $p<.01$ )과 사회적 지지( $t=-2.99$ ,  $p<.01$ ), 양육효능감( $t=-2.58$ ,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보다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인 어머니의 우울이 더 높

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이하의 학력인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의 학력인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과 양육효능감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우울( $t=2.02$ ,  $p<.05$ )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 $t=-4.05$ ,  $p<.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표 5. 영아를 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의 차이  
( $N=231$ )

|           | 전문대졸 이하<br>( $n=91$ ) | 대졸 이상<br>( $n=140$ ) | $t$     |
|-----------|-----------------------|----------------------|---------|
|           | $M(SD)$               | $M(SD)$              |         |
| 자녀에 대한 애착 | 4.28(.45)             | 4.37(.37)            | -1.60   |
| 우울        | 1.35(.39)             | 1.23(.25)            | 2.80**  |
| 사회적 지지    | 3.73(.77)             | 4.00(.58)            | -2.99** |
| 양육효능감     | 3.02(.34)             | 3.13(.32)            | -2.58*  |

\* $p<.05$ . \*\* $p<.01$ .

표 6.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차이  
( $N=231$ )

|           | 400만원 미만<br>( $n=102$ ) | 400만원 이상<br>( $n=129$ ) | $t$      |
|-----------|-------------------------|-------------------------|----------|
|           | $M(SD)$                 | $M(SD)$                 |          |
| 자녀에 대한 애착 | 4.30(.44)               | 4.36(.38)               | -1.19    |
| 우울        | 1.33(.38)               | 1.24(.25)               | 2.02*    |
| 사회적 지지    | 3.70(.73)               | 4.05(.58)               | -4.05*** |
| 양육효능감     | 3.06(.34)               | 3.11(.33)               | -.96     |

\* $p<.05$ . \*\*\* $p<.001$ .

났다. 즉, 400만원대 이상의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보다 300만원대 이하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의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원대 이하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보다 400만원대 이상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에 대한 애착은 우울( $r=-.29, p<.001$ )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 $r=.34, p<.001$ ), 양육효능감( $r=.57,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우울은 사회적 지지( $r=-.47, p<.001$ ), 양육효능감( $r=-.48, p<.001$ )과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 $r=.46,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변인 간에는 유의한 정적 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어머니의 연령, 취업여부, 학력, 가정의 월소득),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이하(1.01~2.25), TOL는 0.1이상(.45~.91)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및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1 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표 7.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지지, 양육효능감의 관계 (N=231)

|              | 1       | 2       | 3      | 4 |
|--------------|---------|---------|--------|---|
| 1. 자녀에 대한 애착 | 1       |         |        |   |
| 2. 우울        | -.29*** | 1       |        |   |
| 3. 사회적 지지    | .34***  | -.47*** | 1      |   |
| 4. 양육효능감     | .57***  | -.48*** | .46*** | 1 |

\*\*\*  $p<.001$

표 8.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N=231)

| 독립변인                 | 양육효능감 |         |          |         |          |         |          |         |
|----------------------|-------|---------|----------|---------|----------|---------|----------|---------|
|                      |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 4단계      |         |
|                      | B     | $\beta$ | B        | $\beta$ | B        | $\beta$ | B        | $\beta$ |
| 어머니의 학력 <sup>a</sup> | .11   | .17*    | .08      | .11*    | .04      | .06     | .03      | .04     |
| 자녀에 대한 애착            |       |         | .46      | .56***  | .38      | .47***  | .35      | .43***  |
| 우울                   |       |         |          |         | -.35     | -.33*** | -.27     | -.26*** |
| 사회적 지지               |       |         |          |         |          |         | .09      | .19**   |
| F값                   | 6.64* |         | 57.39*** |         | 57.99*** |         | 47.93*** |         |
| R <sup>2</sup>       | .03   |         | .34      |         | .43      |         | .46      |         |
| R <sup>2</sup> 변화량   |       |         | .31      |         | .09      |         | .03      |         |

a : 전문대졸 = 0, 대졸 = 1

\* $p < .05$ . \*\* $p < .01$ . \*\*\* $p < .001$ .

2단계에서는 자녀에 대한 애착 변인을, 3단계에서는 우울 변인을, 4단계에서는 사회적 지지 변인을 투입하였다.

영아를 둔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그 설명력은 3%였다. 2단계에서 자녀에 대한 애착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31%로, 총 설명력은 34%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우울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9%로, 총 설명력은 43%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 사회적 지지 변인 투입에 의한 설명력 증가는 3%로, 총 설명력은 46%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자녀에 대한 애착( $\beta = .42$ ,  $p < .001$ ), 우울( $\beta = -.26$ ,  $p < .001$ ), 사회적 지지( $\beta = .19$ ,  $p < .01$ )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6세 이상의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즉, 연령이 높은 영아를 둔 어머니가 연령이 낮은 어머니에 비해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러 방면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취업모보다 비취업모의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에 대한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모는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으로 자

립할 수도 있고, 사회적 지지도 받는 반면에 비취업모는 그렇지 못한 사회적 상황으로 추측된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어머니의 우울은 중요한 발달적 과업인 결혼 및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요인으로 유발되며, 기혼 여성의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와 육아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남재, 2002;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한편, 취업모가 일과 가정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비취업에 비해 오히려 많은 우울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진 정지연(2008)의 연구와는 반대되는 결과로 어머니의 연령대에 따라서 어머니의 우울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과 우울이 함께 고려되어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력에 따라서는 전문대졸 이하의 어머니보다 대졸 이상의 어머니가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이 더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문혁준, 1999; 서소정, 2004)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학력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더 많이 보내고 효율적으로 양육하는데 양육효능감이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의 수입에서는 400만원 이상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보다 400만원 미만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의 우울감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400만원 미만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보다 400만원 이상 소득인 가정의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박영애, 나종혜, 2003; 최형성, 200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녀 양육은 부모의 금전적인 지출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머

니의 정서적 측면에 가족의 수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에 대한 애착은 우울과 부적 상관, 사회적 지지는 양육효능감과 정적 상관, 우울은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에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은 어머니는 우울감이 낮으며,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우울감을 상쇄시킨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어머니에게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양육에 관한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양육효능감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어머니의 정서가 안정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편안하며 자녀에 대한 애착도 높게 되며 결국 어머니의 우울감을 낮아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숙재(1997), 이승미(2004), 류기자 등(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정서적 지지가 양육효능감과 가장 높은 상관을 이루고 있는 것은 양육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칭찬한다면 어머니의 내적 효능감을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양육 기술과 행동이 개선된다고 주장한 연구결과(최형성, 2007; Crockenberg, 1987)와 일맥상통한다. 즉, 주변의 지지제공자들이 어머니 자신에게 애정과 신뢰 등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는 것을 느낄수록, 문제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원해준다고 느낄수록, 어머니가 필요할 때 돈이나 일 등 물질적으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느낄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행위를 인정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어머니에게 적절한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낄수록 어머니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 즉 양육효능감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양육에 관한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관해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도움과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3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정서적 지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구체적으로는 소집단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부모 모임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지지를 주고받는 등의 방법이 효율적일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영아를 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자녀에 대한 애착이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애착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반응과 신체적인 접촉을 보이는 등 높은 양육효능감을 보인 김한나와 서소정(2012)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영아를 둔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강한 정서적 유대감이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할 수 있다는 효능감으로 발전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애착을 높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더

욱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이상의 결과는 어머니가 우울할수록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낮고 양육에 덜 참여하게 되며 낮은 양육효능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경은(2011)의 연구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건강하고 안정된 어머니의 정서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2007)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애정과 신뢰, 심리적인 안정감 등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아진다고 밝혀진 것과 본 연구결과는 일치한다. 즉, 친지나 지역사회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양육에 관한 정보,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증대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백종화와 박성연(2002)의 연구에서 현대사회의 정보화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사회적 지지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후 연구에서는 인터넷에 대한 지지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영아를 보내는 어머니와 그렇지 않은 어머니를 비교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에는 공동양육이 강조되고 있으

며, 양육에서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을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영아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애착, 우울, 사회적 지지를 고려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영아의 기질, 양육경험 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고려 또한 동시에 요구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육효능감 척도는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작된 척도가 아니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를 둔 어머니의 우울을 연구함에 있어 일반집단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판명된 우울증 집단과 일반 집단 간의 비교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양육효능감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관련 변인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활용 가능한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즉, 양육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사회적 지지로 밝혀졌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향

상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본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자녀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유용한 정책적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은 (2003). 자아개념 증진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공격성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은 (2011). 어머니의 우울, 양육효능감, 놀이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 능력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17.
- 김남재 (2002). 생활스트레스와 우울증상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2), 181-195.
- 김미숙 (2005).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연 (201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우울감과 어머니 효능감과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오경자, 하은혜 (1999). 기혼여성의 우울 증상에 따른 양육스트레스 및 부부 관계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1), 79-93.
- 김한나, 서소정 (201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애착과 영아 발달간의 관계 연구: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매개 효과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9(1), 307-329.
- 권석만 (2003). *침체와 절망의 늪 우울증*. 서울:

- 학지사.
- 류기자 (2006). 영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기자, 김영주, 송연숙 (2009). 보육시설 영아반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1), 1-23.
- 문혁준 (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1-11.
- 문혁준 (2001). 부모의 효율적 훈육태도에 관련된 변인 분석. 아동학회지, 22(1), 35-49.
- 박성연, 고은주 (2002). 영아보육 및 가족변인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91-106.
- 박영애, 나종혜 (2003). 출산 전후 여성의 양육 관련 신념 및 부모효능감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3), 287-301.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종화 (2001). 어머니 인터넷 이용실태 및 사회적 지지로서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화, 박성연 (2002). 어머니 인터넷 이용실태 및 인터넷 이용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135-145.
- 서소정 (2004). 양육효능감: 자녀양육행동 매개 모델. 대한가정학회지, 21(5), 51-59.
- 송미혜 (2006).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 양육효능감과 관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송연숙, 김영주 (2007).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연구. 아동교육, 16(4), 107-117.
-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안지영 (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 (2008).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 및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하 (2009). 어머니의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 (2011). 영아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수준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 (2004).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및 자녀 성취에 대한 기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 위논문.
- 이은주 (1997). 아내학대 피해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2), 215-229.
- 이진숙, 한지현 (2004).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63-73.
- 이해영, 권민균 (2007). 어머니 관련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아에 대한 애착. *사회과학논총*, 26(1), 329-344.
- 정지연 (2008).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자기 지각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인 (2003). 어머니의 양육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최형성 (2007). 아동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아동의 자존감 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28(3), 77-100.
- 편은숙 (2003). 영유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어머니 역할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유미 (2003). 어머니의 사회성 양육효능감 지각과 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51-59.
- 현은강, 조복희 (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홍정유 (2006).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수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현주, 정옥분 (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 척도 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3(3), 57-78.
- Beal, J. A. (1991). Methodological issues in conducting research on parent-infant attachmen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 11-15.
- Beck, A. T., Ruch, A., Shaw, B., & Emery, G. (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erlin, L. J., Ziv, Y., Amaya-Jackson, L., & Greenberg, M. T. (2005). *Enhancing early attachments: Theory, research, intervention, and policy*. New York: Guilford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179-189.
- Bornstein, H. M. (2002). Parenting infants, In M. N. Bornstein(2nd ed.), *Handbook of parenting* (Vol.1. pp.3-43). London: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rockenberg, S. (1987). Predictors and correlates of anger toward and punitive control of toddlers by adolescent mothers. *Child Development*, 58(4), 64-75.

- Denham, S. A., & Moser, M. H. (1994) Mother attachment to infants relations with infant temperament, stress, and responsive maternal behavior.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98, 1-6.
  - Dorsey, S., Klie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Gondoli, D. M., & Silverberg, S. B. (197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Hammen, C., Adrian, C., & Hiroto, D. (1988). A longitudinal test of the attributional vulnerability model in children at risk for depression.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1), 37-46.
  - Mash, E. J., & Johnston, C. (1990). Determinants of parenting stress: Illustrations from families of hyperactive children and familie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9, 313-338.
  - Sanders, M. R., & Woolley, M. L.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efficacy and parenting practices: Implications for parent training.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1(1), 65-73.
- 1 차원고접수 : 2013. 7. 19.  
수정원고접수 : 2013. 8. 15.  
최종게재결정 : 2013. 9. 2.

##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for Mothers with Infants and Their Effects on Parenting Efficacy**

**Park, Hee-Jin**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oon, Hyuk-Jun**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elucidate the factors influencing parenting efficacy intended for mothers with infants and targeted 250 mothers with infants, at 15 child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The maternal attachment scale to infant, a depression scale, a social support scale and a parenting efficacy scale were all us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used to gather survey data.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t-test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thers with infants who were aged over thirty six showed a higher level of social support and mothers with infants who were under thirty five showed a higher level of parenting efficacy. Un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showed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employed mothers with infants showed higher degrees of social support. The mothers with infants that had completed university level education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arenting efficacy. The mothers with infants on high incomes showed higher level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lower depression levels than the mothers with infants on low income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e mothers with infants who had higher levels of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s, higher levels of social support and lower depression levels show higher degrees of parenting efficacy. Therefore, greater efforts should be focused on increasing the social support given to mothers with infants.

*Key words : Parenting Efficacy, Maternal Attachment to infant, Depression, Social Support*